너의 꿈을 연주하라

▶ 익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

초중고교생 80여명이 단원
지역 내·외부로 활동영역 확장
정기연주회 등 활발한 공연 통해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 실현
최근 '이리역 폭발 40주기 추모'서
추모곡 연주로 지역사회와 함께해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헌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이 활동영역을 지역 내·외부로 확장하며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을 지향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 어울림과 소통 그리고 화합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한다.

2010년 익산에 첫 발을 내딛은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은 그간 정기교육 및 정기연주회, 지역 내 공연관람, 지역 내 찾아가는 나눔 연주회 등을 통해 엘 시스테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오케스트라는 1년차 초등학생 단원에서 8년차 고등학생 단원에 이르기까지 80여 명의 단원이 함께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정기연주회엔 오케스트라 단원인 최민서(원광예고 2년)이 협연해 더욱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주었다. 최 군은 오케스트라 1기로 처음 음악을 접했다가 전공자의 길을 걷게 된 케이스. 그의 성장은 8년간의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은 지난 11일 열린 '이리역 폭발 40주기 추모행사' 개막식에선 추모곡 연주를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재)익산문화재단은 작년에 이어 광역단위 모델인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 대표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권 6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운영, 지난 10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무대에서 연주를 펼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올해 마지막 예술인 소통 프로젝트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 '톡톡, 문화예술 06'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예술인 소통프로젝트-톡톡 전북문화예술 06'을 29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진행됐던 '문화 한 끼 하실래요?'가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마지막 프로젝트로 열린다.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도민이 모여 음식과 재즈가 어우러지는 '소셜다이닝' 형태로 만나 볼 수 있다.

'소셜다이닝'은 온라인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선 파티 문화 활동의 하나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전주 객리단길에 위치한 '듀마1844'에서 열리는 행사는 이탈리아 전문 요리사의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여기에 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준영트리오(서준영·임지은·곽승현·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 재학)의 재즈 콘서트를 더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타 장르 간 예술가와 예술가를 이어주고 음식과 음악으로 문화를 친근하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재즈음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및 전화(063-230-7423)로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귀로 듣는 미술, 눈으로 보는 음악'

교동아트미술관, 오늘 진행

교동아트미술관(관장 김완순)은 29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귀로 듣는 미술, 눈으로 보는 음악-음악이 흐르는 미술관'을 마련한다.

오후 4시30분부터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될 이날 행사는 리에티 대표이자 반주자로 활동하는 김미진 피아니스트와 테너 박진철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강정이 도자공예작가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강정이 작가와 함께 '흙으로 빚는 우리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옥마을에 계시는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트로 힐링하다-해설이 있는 미술관'을 진행한다.

문턱을 낮춘 미술관을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립미술관 전문 인력으로 지원받는 에듀케이터로, 어르신들에게 미술전시 해설과 체험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따뜻함을 나눌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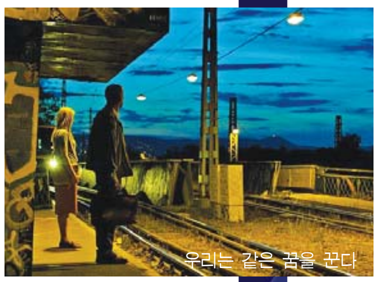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1월 마지막주 상영작

사랑에 서툰 여자 사랑이 권태로운 남자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시력 잃어가는 남자 새 인연 만나 희망 얻다

-빛나는-

빛나는

19세기 대표 시인 에밀리의 시와 이야기

-조용한 열정-

조용한 열정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11월 마지막 주 영화로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빛나는' '조용한 열정'을 개봉·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는 사랑에 서툰 여자와 사랑이 권태로운 남자가 우연히 같은 꿈을 꾸게 되며 사랑에 빠지는 판타지 로맨스 작품이다.

일디코 엔예디 감독이 18년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영상과 서정적인 음악, 남녀주인공의 섬세한 연기가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공상을 포함 4관왕의 영광을 얻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거장 영화감독 반열에 올라선 가와세 나오미의 신작 '빛나는'은 최고의 포토그래퍼였지만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병에 걸린 남자가 영화의 음성 해설을 만드는 초보 작가와 만나 다시 희망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두 남녀가 서로에게 스며들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감독 특유의 서정적 연출로 담아냈으며, 감독의 페르소나 나가세 마사토시와 전설적인 여배우 키키 키린 그리고 떠오르는 신인 배우 미사키 아야메가 출연했다. 제70회 칸영화제 에큐메니컬상 수상,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되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43회 벨기에 겐트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조용한 열정'은 19세기 대표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영국 가디언지 및 미국 롤링스톤지에서 2017년 상반기 최고의 영화에 선정되며 꼭 봐야 할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먼 목소리, 조용한 삶' '긴 하루가 지나고'로 영화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영국의 거장 테렌스 데이비스가 연출을 맡았으며 '섹스 앤 더 시티'의 변호사 미란다로 친숙한 신시아 닉슨이 에밀리 디킨슨 역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JCI™

함께하는 변화 행동하는 순창JC!

어느덧 순창청년회의소(이하 순창 JCI)가 41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창JCI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열고자 합니다.
12월 1일 열리는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이임회장 최형원

2017년 12월 1일(금) 18:00

순창국민체육센터

JCI™ 순창청년회의소

취임회장 김종덕